

2002년 6월 17일

---

## 당 지도부 연석회의 노무현 후보 연설

이번 지방선거 참패와 저의 개인에 대한 지지율 하락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아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당에서는 수습 안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방안인 전당대회를 통한 재신임 문제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수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당은 심각한 내부의 분쟁과 권력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은 8.8 보선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8.8 보선 이후 또 다시 책임을 묻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문제를 8.8 보선에 전력을 다한 이후에 일거에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8.8 이후에 원점에서 후보 경선을 다시 해도 좋다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당내에는 후보교체 이야기, 영입 이야기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과 통합'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 없는 영입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끊임없이 외부인사 영입 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 입장만을 계속 관철해 나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입당시켜서 원점에서 후보 경선을 다시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경선을 통해 다시 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개최 유무와 관계없이 당은 8.8 보궐선거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8.8 보선에 대해 '전권을 갖는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천절차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부패에 대한 청산의 문제는 단순히 단절과 차별화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산의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8.8 보선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 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어주십시오.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도부가 이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질 만한 권한 행사나 또 어떤 대책을 세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지도부에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이 지도부의 잘못에 있는가에 대한 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거당적인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한 지도부에 대해서 이번 지방자치 선거 결과를 놓고 다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승복의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끊임없이 흔들어도 좋다는 이런 정치문화를 가지고는 결코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도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을 끊임없이 표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논란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면 집단지도체제에 맞도록 집단지도체제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 해소책은 결국 전당대회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다소 외람 되게 들릴지 몰라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자세로 우리 민주당이 그만해도 성의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모든 책임을 물어주시고, 8.8 보선 이후에 재신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경선 등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테니까 당에서 이런 방향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오늘 결정은 전당대회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하지 않고 8.8 이후에 재경선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는 결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결정이든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에 대해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그 해석은 당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경에 저도 착잡함이 많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후보가 되고 나서 의원님 몇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상의를 해보고, 전화를 해보면 다 지구당에서 경선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전부 다 올라와서 후보와 정책을 논의하자고 하기도 염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선거 일선에 나섰습니다. 굳이 변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제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셔서 과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인지, 민주당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모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제 문제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여서 제 스스로도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겠지만 논의를 하시는 분들 또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뜨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회의가 우리 당의 그 동안의 부진을 씻고, 패배주의를 씻고,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